

(붙임)

주식선물시장의 성장과 향후 전망 분석

(파생상품마케팅부, '15. 3. 23)

1 현황

- (주식선물 거래규모 증가) '13년 대비 '15년 코스피200선물·옵션, 3년국채선물 등 주요 상품의 일평균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,
 - 주식선물은 거래량 26.5%, 거래대금 42.0% 증가

《 KRX 주요 파생상품 일평균 거래규모 》

(단위 : 계약, 억원)

구분		주식선물	코스피200 선물	코스피200 옵션	미국달러 선물	3년국채 선물
거래량	'13년	388,138	202,311	2,350,042	209,775	118,591
	'14년	393,329	155,335	1,885,759	198,627	87,833
	'15년	491,057	141,111	1,781,732	240,489	108,320
	증감	+26.5%	-30.3%	-24.2%	+14.6%	-8.7%
거래대금	'13년	2,517	259,977	10,643	23,067	125,834
	'14년	2,690	199,166	7,293	21,014	93,804
	'15년	3,573	176,011	6,356	26,441	117,652
	증감	+42.0%	-32.3%	-40.3%	+14.6%	-6.5%

2 주식선물 거래 증가 원인

- ◆ 주식선물 기초자산수 확대(25개→60개)뿐만 아니라,
 - ① (시장조성자 제도) 시장조성자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자가 언제든지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*
* 선물가격과 이론가격 간의 차이 축소 / 차익거래자 유입 촉진
 - ② (개별기업의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) 개별기업의 이벤트 발생시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
 - ③ (주식선물 제도개선) 협의대량거래 도입 등 거래편의성 제고
 - ④ (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) 시장조성자가 증권거래세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인 시장조성이 가능 → 향후 거래 증가 기대

1.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

- 시장조성자가 상시적으로 매도·매수 호가를 제출하여 투자자가 언제든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(호가스프레드 개선) 최우선 호가스프레드가 제도개선 이전 2.1 틱에서 1.4 틱으로 축소되었으며, 호가잔량도 크게 증가*
* 신규 종목도 단기간 내에 기존종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동성을 확보

《 주식선물 시장조성자 도입 전·후 호가스프레드 및 잔량 》

구분		최우선 매도·매수 호가스프레드	최우선 매도 호가잔량	최우선 매수 호가잔량
제도개선 이전 ('14.3.14~9.12)		2.1 Tick	52.3계약	52.3계약
제도개선 이후 ('14.9.15~15.3.13)	기존종목	1.4 Tick (0.7 Tick↓)	121.5계약 (+69.2계약)	122.5계약 (+70.2계약)
	신규종목	1.8 Tick	47.5계약	47.3계약

- (괴리율) 선물가격과 이론가격간 차이*가 제도개선 이전 0.199%에서 제도개선 이후 0.109%로 축소되면서 선물의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
* 기존 종목의 괴리율((선물가격 - 이론가격) / 이론가격) 절대값의 평균
- (차익거래자 유입) 시장조성자가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가 유입 → 현·선물 간의 균형이 유지

2. 개별 기업의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

- 주식선물시장은 '08년 개설된 이후 개별기업의 주가변동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
 - 특히, 특정 이슈*가 발생할 경우 주식선물 활용 사례가 많고, 기초자산수 증가(25개→60개)로 대형 우량주 중 다수가 상장됨에 따라 주식선물 활용도가 제고되었음
* 현대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10조원 인수 발표('14.9.18일) 등

3. 주식선물 제도 개선

- (거래규모) 기존 종목(25개)은 전반적으로 거래규모가 증가하고, 신규 종목(35개)은 초기 유동성 확보에 성공

- (기존 종목) 주식선물도 다른 상품들처럼 거래규모가 큰 폭 감소하였으나, 제도개선 이후 거래대금이 17.0% 증가*
 - * 거래량 감소는 두산인프라(-45,160계약) 및 SK하이닉스(-36,017계약)에 기인하며, 두 종목을 제외할 경우 23종목의 거래량은 32.5% 증가

《 주식선물 기존 종목 거래규모 추이 》

(단위 : 계약, 억원)

구분	'13년	'14.1.2~9.12 (A)	'14.9.15~15.3.13 (B)	증감률 (B/A-1)
거래량	388,138	351,965	337,981	-4.0%
거래대금	2,517	2,293	2,682	+17.0%

- (신규 종목) 35개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151,776계약*, 거래대금은 912억원 수준으로 유동성 확보에 성공

* LG유플러스 13,067계약, S-Oil 12,868계약, 대우조선해양 12,598계약 등

- (협약대량거래) 기관·외국인 투자자가 최종거래일 주간에 평균 22,348계약·1,311억원을 협약대량거래로 포지션 이월*

* 투자자 비중은 외국인 96.3%, 금융투자 3.7%

4.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*

※ (참고) 주식선물·옵션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(0.3%)를 면제

- 시장조성자의 거래비용 부담이 없어서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(시장조성호가 제출)이 가능*해져

- 보유 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려는 신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주식선물 거래규모 증가 기대

3 향후 전망

- 향후 주식선물 추가 상장* 및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으로 주식선물시장이 개별 기업의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지속 성장하고,

* 코스닥 주식선물 및 유가증권시장 추가 상장('15.7월 예정)

- 원활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식시장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현·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*

* '14.9.15~15.3.13 시장조성자 주식 거래량 : 약 1.5천만주(약 1.4조원) / 전체 거래량의 0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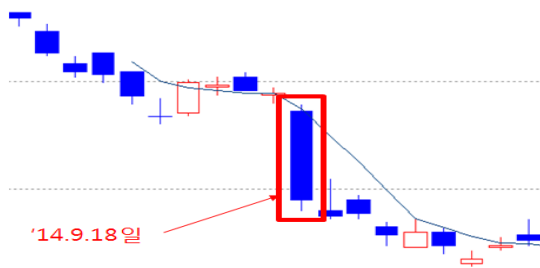
※ 개별 기업 이슈 발생 시 주식선물 활용 사례

- 개별 기업이 특정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,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, 주식선물을 매도하여 가격 하락 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

① 현대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10조원 인수 발표('14.9.18일)

- (개요) 현대차가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 입찰에서 감정가(3.3조)의 3배 수준인 약 10조원에 낙찰되면서 주가가 급락
 - (거래규모) '14년(~9.17) 대비 거래량은 +412.8%, 거래대금은 +352.3% 증가
 - 주요 기관(금융투자 및 투신)이 현대차 주식선물을 이용하여 현물 보유 포지션의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
- * 활동계좌수 : 금융투자 16개 → 29개(+13개), 투신 17개 → 48개(+31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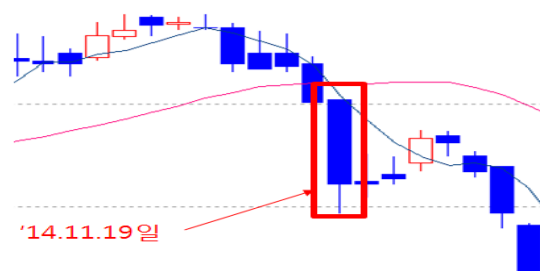
이에 주요 기관들이 주식선물을 통해 헤지를 하면서 거래규모 증가



거래량 ('14년 평균)	38,875계약 (7,581계약)
거래대금 ('14년 평균)	796억원 (176억원)
고가	217,500원
저가	198,000원
등락률	-8.45%

② 삼성중공업·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('14.11.19일)

- (개요) 주식매수청구액 과다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
 - (거래규모) '14년(~11.19) 대비 거래량은 +778.5%, 거래대금은 +716.1% 증가
 - 주요 기관(금융투자 및 투신)이 삼성중공업 주식선물을 이용하여 현물 보유 포지션의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
- * 활동계좌수 : 금융투자 7개 → 10개(+3개), 투신 5개 → 11개(+6개)



거래량 ('14년 평균)	106,927계약 (12,171계약)
거래대금 ('14년 평균)	253억원 (31억원)
고가	24,900원
저가	22,900원
등락률	-5.03%